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15-학인-00031, 15-학인-00032(병합)
체벌 및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피해자의 아버지)
피 해 자 ○○○(○○○○○○ ○학년 ○반 재학)
피 신 청 인 ○○○(○○○○○○ 교사, ○○ 교과 담당)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은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하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권리구제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할 것을 권고한다.

나. 위와 같은 일이 학교에서 발생한 것은 교사가 학생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등 낮은 인권감수성에 원인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의 권리구제 활동을 이유로 학교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학교장에게,

피신청인이 피해자 및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 2015. 6. 17.(15-학인-00031), 같은 달 24.(15-학인-00032)

나. 신 청 인 : ○○○(피해자의 아버지)

다. 피 해 자 : ○○○(○○○○○○ ○학년 ○반 재학)

라. 피신청인 : ○○○(○○○○○○ 교사, ○○ 교과 담당)

마. 구제신청요지

1) 2015. 6. 12.(금) 2교시 종료 후 쉬는 시간 경, 피해자가 ○학년 ○반 앞 복도를 지나는 중에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피해자를 면담실로 불러 뺨을 때리고, ‘엎드려 뺨쳐’를 시키는 등 체벌과 폭언을 하였다.(15-학인-00031)

2) 피신청인은 2015. 4.경부터 ○학년 ○, ○, ○, ○, ○반의 수업시

간에 학생들에게 “○반 실장은 담임선생님이 시켜줘서 실장을 한다”, “피해자가 역사체험부에 들어가고 싶다고 담임에게 이야기하여 다른 학생을 빼내고 피해자가 들어갔다”고 말하고, 이 사건 이후에는 “이 친구(피해자)가 몸을 더듬는 것이 싫어서 뭐라고 좀 했는데, 학부모가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 신고를 한다”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15-학인-00032)

3) 2015. 6. 12.(금) 이후에도, 수업 중에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말하였다.(15-학인-00032)

2. 관련 규정

별지와 같다.

3.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신청인 및 피해자의 주장

1) 체벌 관련

가) 2015. 6. 12.(금) 2교시(미술시간)가 끝나고, 미술선생님의 지시로 미술시간에 사용했던 노트북과 미술책을 갖다 놓으려고 복도를 지나던 중, 피신청인이 피해자를 불러 세워, “야, 놓고 따라와”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들고 있던 책이 무거워, 힘든 상태로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지나던 중이어서, 피신청인을 보지 못하였다.

나) 본관 2층에 있는 면담실로 찾아가니, 피신청인이 안경을 쓰

고 앉은 상태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인사를 하니, 피신청인이 일어서서 다가와, “안경 벗어”, “너는 나를 무시했다”는 말을 하였고, 얼굴(얼굴과 귀의 중간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다) 피신청인이 출입구 방향으로 많이 걸어와 있는 상태였고, 안경을 벗으라고 해서 옆에 있는 탁자에 놓았다. 피신청인으로부터 1회 체벌을 당한 뒤에는,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치는 상황이었다. 피신청인이 손목시계를 풀고 안경을 벗으면서, “엎드려”라고 말하였지만, 치마(교복)를 입고 있어 엎드리지 못했고, 너무 무서워서 계속 울었다.

라) 피신청인이 차후 추가 상담일정을 이야기 하면서, 벗어 두었던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고, 시계도 풀었다가 채웠다가 하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피신청인에게 또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질문에 대답을 잘 하면 맞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했는데, 보내주지 않고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마) 피신청인이 매를 든 상태로, “인간취급을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이 화났다는 것을 계속 표현해서, 빨리 대답하고 빨리 그 자리에서 나가고 싶었다.

바) 얼굴을 맞은 이후로 귀가 멍멍하여, 최창익 이비인후과에 3일간 통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이후 전문심리상담사와 상담치료 중에 있으며, 수면장애로 인해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

2) 허위사실 유포 관련

가) 피신청인이 수업을 맡고 있는 학급은, ○학년 ○반부터 ○반

까지이다.

나) ○학년의 여러 친구들로부터, 피신청인이 수업 중에 “○반 실장(피해자)은 선생님이 시켜줘서 실장을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고 전해 들었는데, 위와 같은 발언은 2015. 4.경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 ○학년 ○반의 실장을 뽑을 때 후보자는 9명이었고,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서 피해자가 실장으로 선출되었다.

라)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도, 피신청인은 ○학년 ○반부터 ○반까지 수업을 하면서, 해당 반의 학생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일부 학생들에게 변태라고 소문이 나고, 곱지 않은 시선 및 ‘뒷담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체벌 관련

가) 2015. 6. 12.(금) 2교시 끝나고, 본관 3층 ○학년 ○반과 ○반 사이에 있는 복도를 걸어가던 중, 고개를 꼭 숙이고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와 교차하며 지나치게 되었다.

나) 피해자가 공간이 좁은 쪽으로 몸을 틀어 걸어가면서 “아이씨”라고 말하기에, “뛰여?”, “따라 내려와”라고 말했다.

다) 수업 중 “예의 없는 행동을 하면, 면담실에서 혼난다”라고 여러 번 학생들에게 이야기 하였기에 “따라 내려와”라고 하면 면담실

로 오라는 뜻으로 학생들이 다 이해하고 있었다.

라) 당시 복도에는 다른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면담실에서 지도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마) 복도에서 지시하고 면담실에 있으니, 3~4분 정도 뒤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왜요?”라고 말하였고, “너, 내가 여기 왜 불렀는지 몰라? 선생님을 보면 어떻게 인사하는지 몰라?”, “너 선생님에게 뭐라고 하면서 지나갔어?”라고 물었다.

바) 피해자는 “인사했어요”라고 대답 하였고, 이에 “선생님을 지나치듯이 인사하냐?”라고 말하면서 화난 표정을 지었다. 피해자가 “못 봤어요(못 봐서 지나쳤다)”라고 대답하였고, “긴 복도를 걸어오면서 나를 못 볼 수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피곤해서요”라고 대답하여, “피곤과 그 태도가 무슨 관계가 있어?”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였고, 계속하여 지도를 하니 “너무 무서워서요”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야, 너 같은 애가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발전이 없는 거야.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 3교시 시작을 알리는 종이 치기에, “다음 시간 뭐야?”, “수업에 늦으면 다른 선생님에게 혼이 나니까 가고, 언제 올 거야? 더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대답 없이 울기만 하였다. 피해자에게, “그럼 점심 좀 일찍 먹고 점심시간에 와”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밥을 먹어야 하는데 줄을 서야 해요”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다시 “좀 일찍 올 수 있잖아”라고 이야기하자, 피해자가 “줄 안

서면, ○○○(인성인권부장) 선생님에게 혼나요”라고 대답했다.

아) 그래서 “HR시간은 뭐 하냐?”라고 물으니, 피해자가 “회의해야 되요”라고 대답하였고, “CA시간은 뭐 하냐?”라고 물으니, “스도쿠해요”라고 대답하기에, “그럼 다음 주 화요일(2015. 6. 16.) CA시간에 농구장 옆 머릿돌 있는 곳으로 와라”, “가”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보냈다.

자) ○○○○○에 온지 1년 6개월 남짓 되는데, 남학생의 발바닥을 ‘가르침 대’를 사용해서 체벌한 일은 있지만, 그 외 신체를 이용해서 학생에게 체벌을 한 사실이 없다.

차) 면담실에서 피해자를 지도하면서, ‘가르침 대’를 들거나 (손목)시계를 풀면서 엎드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허위사실 유포 관련

가) 현재 ○학년 ○, ○, ○, ○, ○반의 ○○수업에 들어가고 있다.

나) 위 학급에서 수업하는 중, 학생들에게 “○반 실장(피해자)은 담임이 시켜줘서 하고 있다”, “(피해자가)역사체험부에 들어가고 싶다고 담임(○○○)에게 이야기해서 다른 학생을 빼내고 피해자가 들어갔다”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위 학급에서 수업하는 중, “이 친구(피해자)가 몸을 더듬는 것이 싫어서 뭐라고 좀 했는데, 학부모가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 신고를 한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라) 이 사건 이후 위 학급에서 수업하는 중, 칠판에 ‘○○’이라

고 기재하고, 특정 학생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교사 ○○○(수학 교과 담당)의 주장

가) 2015. 6. 12.(금) 3교시에, ○학년 ○반 교실에서 수학수업을 진행하였다. 출석을 확인하는데, 피해자의 자리가 비어 있었고, 평상시 피해자의 품행으로 보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수업시작 후 5~8분이 지나 피해자가 교실에 왔다.

나) 피해자는 울먹이면서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고, 피해자가 입실하고 4~5분 정도 지나, “선생님, 화장실에 좀 다녀올게요”라고 하기에, 이유를 묻지 않고 “울음 그치고 와”라고 말하며 허락하였다.

다) 학생들에게 이론수업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중에, 피해자가 교실에 다시 들어왔다.

2) 교사 ○○○(○○ 교과 담당)의 주장

가) 2015. 6. 12.(금) 4교시에 ○학년 ○반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가 교단 앞으로 걸어 나와서, “선생님, 머리가 아파서 보건실에 좀 갔다 올게요”라고 말 하였고, “그래 다녀오너라”고 허락하였다.

나)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기에, 단순히 ‘아픈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였고, 특별히 다른 이유로 인해 보건실에 간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눈물이 그렇그런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이 아픈가 보다고 생각하여 바로 보건실에 가도록 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업이 시작하자마자 보건실에 갔고, 수업에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

3) 참고인 ○○○(피해자의 담임 교사)의 주장

가) 2015. 6. 12.(금) 오후, 종례하기 전에 교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나) 피해자에게 들은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지나가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야 이놈아, 상담실(2층)로 …”하고 불렀다.

상담실에 갔는데 피신청인이 안경 벗으라고 해서 안경을 벗자마자 얼굴을 때렸다. 피신청인은 안경 벗으면서 손목시계를 벗고, 소리쳤는데, 맞아서 아프기도 하고 무서워서 울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무시한 거 아니다”고 말 했는데, 피신청인은 “너는 거짓말 한다. 너 알아봤다”라고 하면서 “너네 엄마 아빠가 대통령이라도 상관 안한다. 선생님들한테 아부 떤다.”, “너 같은 애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했고, 이후에도 말을 많이 했는데, 무서워서 뭐라고 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피해자는 피신청인에게 맞아서 귀가 멍멍한 상태였는데, 보내주기 전에 피신청인은 “수업시간에 안 보내주면 ○○한다고 하니까 너 보내주는 거다. 나는 화 안 풀렸어”라고 하면서, “지금 화난 게 너 버릇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같은 년은 그냥 놔두면 안된다”고 말했다.

4) 참고인 ○○○(당시 위 학교 교감)의 주장

가) 2015. 6. 15.(월) 저녁 때, 피해자의 담임교사와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나) 피해자에게 들은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피신청인과 멀리서 눈이 마주쳤는지 모르겠는데 문을 열고 나왔다. 그래서, 고개 숙이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담실)오라고 했다.

상담실에 갔는데, 피신청인은 처음에 뭐라고 하다(“니가 생활지도 부냐?”고 한 것 같음)가, 안경 벗으라고 해서 피해자가 안경 벗자마자 얼굴을 때렸다. 귀와 볼을 동시에 세게 맞았다.

피신청인은 시계 차고 있는 거 벗고 안경을 벗고, 매를 들고 옆드리라고 소리쳤는데, 피해자는 아프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서 있었다. 피신청인은 이후, “니가 대단한 줄 아냐?”, “나는 애들이 인사안 해도 상관없다. 너가 나 무시하냐?”고 해서 피해자는 “아니다”고 했는데, 피신청인은 “너는 항상 거짓말만 한다. 말을 잘 피해간다.”고 이야기했다.

피신청인은 “내가 학생부 싫어하는 거 알지? 지들이 뭔데, 앞에서 학생들 잡고 그러냐?”,고 하고, “너 같은 애가 있어서 대한민국이 망한다”, “다른 선생님들한테 아부 떨면서 한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너네 엄마, 아빠가 누구이든 상관 안 한다. 대통령이든 상관 안 한다.”고 하기도 했고, 모두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때 피해자가 수업시간이라고 하니 피신청인은 “지금 안 보내주

면 수업 빠뜨리고 혼낸다. ○○한다고 하니까 보내주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피신청인은 수업 때문에 교실로 가기 전에, “점심시간에 오면 안 되냐?” 해서 피해자는 “점심시간에 늦으면 ○○○ 선생님한테 혼나요”라고 했는데, “그래 너는 그런 선생님 좋아라 하니까 안 되겠네”라고 하면서, “너가 그렇게 존경하시는 담임선생님은 언제 오시냐?”고 하면서, “너 버릇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같은 애는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내가 화가 풀린 게 아니다. 인간 취급 안 하는 거 알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

5) ○학년 ○반~○반 15명(학급당 3명) 면담 결과

가) 수업 중 피신청인이, ○반의 피해자 학생과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칠판에 ‘○○’이라고 적어 놓고, 그 학생 뒤에서 조종하는 어른이 있다며 그 어른을 찾아 낼 것이라고 했다. ○반 담임선생님 등 여러 선생님의 욕을 한 적이 있다.

나) ○○수업시간에 피신청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담임인 ○○○ 선생님의 험담을 하였는데,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학급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마음에 들거나, 성적이 좋아서 실장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쁘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

다) 피신청인은 선생님들을 많이 비하한다.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라’고 하고, ‘맞았다고 하는 것이 다 조작되었다’고 말했다.

라) 피신청인이 수업시간에, 피해자가 실장이 된 것은 “담임선생님이 좋아해서 뽑은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CA에 역사체험부가 있는

데, “담임선생님이 피해자를 좋아하고 아껴서, 거기에 들어가 있던 애를 빼고 피해자를 넣어줬다”고 하셨습니다(사실은 아니었음).

마)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이후 수업 중에, “불을 끄면 무섭다고 한다”, “불을 끄고 수업을 해야 겠다”, “불 켜다고 그 애(피해자)가 부모님께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비꼬며 말했다. 수업 중에 “그런 애는 ‘○○’이다”라고 하면서, 칠판에 ‘○○’을 쓰고 “불 끄고 무서워하면 ○○이다”라고 말했다.

바) 피신청인은 우리 반에서 수업을 하다가, 칠판에 ‘○○’이라고 써 놓고,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아이들은 다 ○○이다”라고 말했다.

사)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원 원장이 개입할 일이 아는데, 개입한다’고 하면서 그 역시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6) ○학년 ○반(피해자의 반) 학생 6명 면담결과

가) (3교시 수업에 들어온)피해자가 울면서 몸을 떨었고, “엄마한테...”라는 말만 반복하며 계속 울었다.

나) 피해자가 4교시 ○○시간에 보건실에 간다고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아서, 수업이 끝난 후(점심시간), 보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왜 그랬어? 말 못하겠어?”라고 물으니, 피해자가 “맞았어”라고 대답했다.

다) 점심시간에 양치질 하면서 피해자와 대화하였는데, 피해자가 “상담실에서 피신청인에게 맞았다”라고 얘기하였다(학생들은 상담실과 면담실을 혼용하고 있음).

라) 학기 초, 실장후보가 9명이었고, 학생들 투표를 통해 피해자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마) 피신청인이 학생(들)을 때리거나 겁주는 모습, 수업시간에 다른 선생님 이름을 거론하며 험담을 하는 모습이 좋지 않다.

바) 피신청인은, “우리 학교에서 나 좋아하는 선생님 없다. 다들 나를 쫓아내려고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사) 여학생 중에는 피신청인에게 면담실로 끌려가서 발바닥을 맞았다는 학생도 있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학생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체벌 관련

가) 2015. 6. 12.(금) 2교시 종료 후 쉬는 시간에, 피신청인과 피해자는 본관 3층 ○학년 ○반과 ○반 복도 앞에서, 서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다가 교차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2층에 있는 면담실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2015. 6. 12.(금) 2교시 종료 후 쉬는 시간에 면담실에 갔다.

다) 피해자는 면담실에서 5~10분 가량 피신청인과 면담을 하였

고, 울면서 면담실에서 나왔다.

라) 피해자는 3교시 수학수업에 5~8분 정도 늦게 들어왔고, 입실하고 4~5분 정도 지나, 수업을 하던 교사 ○○○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였으며, 위 ○○○는 이를 허락하면서 피해자에게 ‘울음을 그치고 오라’고 말하였다.

마) 피해자는 4교시 ○○수업시간에, 교사 ○○○에게 ‘머리가 아파서 보건실에 다녀오겠다’고 하고, 허락을 받아 보건실에 있었다.

바) 피해자가 4교시 수업에 복귀하지 않아, 같은 반 ○○○, ○○○ 학생이 수업종료 후 보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피해자는 “맞았다”고 대답했다.

사) 피해자의 담임교사 ○○○는, 2015. 6. 12.(금) 오후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고, 같은 달 15.(월) 저녁에 교감 ○○○와 위 ○○○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가 동석한 상태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는데, 피해자는 ‘피신청인이 면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의 중간부분을 1대 때려서 아팠다’고 진술했다.

아) 피신청인은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허위사실 유포 관련

가) 피해자는 학기 초에 위 학교 ○학년 ○반의 학급 실장 선거에 출마(9명 입후보)하여 투표로 당선되었고, 현재까지 위 학급의 실장을 맡고 있다.

나) 피신청인은 위 학교 ○학년 ○반부터 ○반까지, ○○ 과목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학년 ○반부터 ○반까지 수업을 하면서 해당 반의 학생들에게, “불을 끄면 무섭다고 한다”, “불을 끄고 수업을 해야 겠다”, “불 켜졌다고 그 애(피해자)가 부모님께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

라) 또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이야기에 덧붙여, “그런 애는 ‘○○’이다”라고 하면서 칠판에 ‘○○’을 쓰고, “불 끄고 무서워하면 ○○이다”라고 말하였다.

나. 판단

1) 체벌 관련

인정사실 1)-사)항, 1)-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피신청인의 주장은 상반되고, 피신청인이 피해자를 체벌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나 피해자가 체벌을 당하여 입은 상처 등 체벌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하지만, 인정사실 1)-다), 라), 마), 바)항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가 상당시간 눈물을 흘렸다는 점, 눈물을 흘린 후 머리가 아파 보건실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찾아간 학생들에게 “맞았다”고 이야기(피신청인 면담 후 2시간가량 경과)하였다는 점, 사건 당일인 2015. 6. 12.(금) 오후 담임교사와 면담하는 상황과 같은 달 15.(월) 저녁 교감과 면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신청인에게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

는 내용과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점, 중학교 ○학년인 여학생이 본인이 실제로 겪지 않은 이야기를 일관(친구들에게 보건실에서 피해 사실 진술, 담임교사와 교감 선생님, 부모님에게 진술 등)되게 꾸며서 이야기하고 피신청인을 음해할 정도로 치밀하지는 못할 것이고, 그렇게 꾸며서 거짓으로 이야기할 이유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신청인에게 차별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신청인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면, 인정사실 1)-다), 라), 마), 바)항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인다.

따라서 2015. 6. 12.(금) ○○○○○ 면담실에서, 피신청인은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귀의 경계부분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그 차별의 강도는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수치심 및 모욕감을 느낀 것도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허위사실 유포 관련

피신청인의 주장과 신청인 및 피해자의 주장은 상반된다. 하지만, 위 학교 ○학년 ○반부터 ○반까지의 학생들을 면담한 결과, 피신청인이 “선생님의 마음에 들거나 성적이 좋아서 실장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나쁘다”, “담임선생님이 좋아해서 뽑았다”, “○반 실장(피해자)은 선생님이 시켜줘서 실장을 한다”, “피해자가 역사체험부에 들어가고 싶다고 담임에게 이야기 하여 다른 학생을 빼내고 피해자가 들어갔다”는 등의 발언을 수업 중에 하였다고 학생들이 진술하고 있다.

이런 정황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피해자가 학생들의 투표를 통하여 실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담임교사가 피해자를 실장으로 임명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수업 중에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사가 학생 개인 신상에 대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평가 및 피해자에 대한 평판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평가 및 평판을 통해 다른 학생들이 피해자와 어울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결과적으로 해당 학생(피해자)에 대한 따돌림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구제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분 관련

학생들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2015. 6. 17. 피신청인과 관련한 구제신청(15-학인-00031)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기되고, 같은 달 24.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학생들을 조사하는 것을 알게 된 피신청인이, 같은 날 수업 중 ○반의 피해자 학생과 있었던 일로, 칠판에 ‘○○’이라고 적어 놓고, “그 학생 뒤에서 조종하는 어른이 있다, 그 어른을 찾아 낼 것이다”, “피해자를 때린 것이 아니다, 맞았다고 하는 것은 다 조작되었다”, “불을 끄면 무섭다고 하니, 불을 끄고 수업을 해야겠다. 불 켜다고 그 애(피해자)가 부모님께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 애는 ‘○○’이다”, “불 끄고 무서워하면 ‘○○’이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진술하고 있다.

각기 다른 반에 있는 학생들의 주장에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인 점으로 보았을 때, 피신청인은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신청인이 피해자와 관련하여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라 함)에 따라 권리구제를 신청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느낀 불쾌감 또는 분노를 타 학급의 학생들에게 알리고, 욕설을 하거나 비아냥거린 행위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생각과 피해자에 대한 평판에 영향을 줌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학생이 권리구제를 신청하

였다는 이유로,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학교에서 학생(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조례에 따른 권리구제를 다른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권리구제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피신청인은 피해자를 차별하고, 수업 중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따돌림을 조장하였으며, 신청인 및 피해자가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른 권리구제를 요청하자, 피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다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명백함에도 위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피신청인은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에 대한 신분상 처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를 교사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이유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교육 대상’ 혹은 ‘지도 대상’으로만 보고, 인격체로는 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교사들이 학생들도 한 사람으로서 인격체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례에 따라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과 관련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권리구제 활동을 방해 또는 위축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9. 24.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서명)

[별지] 관련 규정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 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